

충북지역 보건소 간호사의 보건사업 수행활동에 관한 조사연구

박영임

결론 및 제언

1986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청북도 지역내 12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원 7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영역별 활동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연령분포는 30~39세군이 45.3%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4.9세이었다. 최종학력은 1명을 제외한 98.7%가 전문대학 졸업이었으며, 근무실별로는 모자보건센터에 가장 많은 41.3%이었다. 보건소 근무경력은 1~4년이 38.7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임상경험자도 58.7%로 응답되었다.

2. 보건사업 영역별 업무수행 정도

전체 사업영역에 대한 총 수행평균은 2.031이었고 영역별 수행정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업계획(2.859)과 기타 행정사항(2.489) 영역으로 나타났다.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영역이 다음 순위였고 기타 질병관리와 실습교육면의 수행정도가 가장 낮았다.

각 영역별로 구체적 항목에 따른 수행 내용에서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을 보면, 사업계획에서는

기록 및 보고가 3.333이었고 산전관리 영역의 임부발견 및 등록(2.627), 산후관리의 산모의 건강상태 측정(2.497), 가족계획에서는 개별중심의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(2.560) 각각 높게 나타났다. 또한 영유아 관리에서는 개별중심의 예방접종과 교육(2.480), 결핵관리에서는 환자발견 및 등록(1.892), 질병관리영역은 성병환자 상담 및 보건교육(2.203) 등으로 응답되었다.

3.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사업 수행 정도

보건소 간호사의 보건사업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중 3영역 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근무지, 근무실, 면허 및 자격소지였다($P < 0.01 \sim P < 0.05$).

1) 근무실별 보건사업 수행 정도의 비교에서 각 사업영역별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, 사업계획은 결핵실이 3.70으로 가장 높았다($P < 0.01$). 또한 산전, 분만, 산후, 영유아 관리영역은 모두 모자보건센터의 경우에서 수행정도가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$P < 0.01$). 가족계획, 결핵관리 및 질병관리 영역은 모두 해당 근무실인 가족계획실이 3.292, 결핵실이 4.188, 예방접종실이 2.875로 응답되었고 전체 수행정도에서는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수행정도가 높았던 모자보건센터 간호사가 2.302로 가장 높았고 치과진료실은 1.372

로 나타났다.

2) 모자보건센터와 보건소 간호사간의 업무수행의 비교에서 모자보건센터의 경우가 산전관리(3.10), 분만관리(2.843), 산후관리(3.367), 영유아관리(2.777) 영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$P < 0.01$) 전체 수행점수도 모자보건센터가 2.302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$P < 0.01$).

3) 면허 및 자격소지에 따른 업무수행 정도의 비교에서 간호사 단일면허자에 비해(1.858) 조산원 면허를 소지한 경우가 2.376로, 조산원과 양호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의 2.173보다 높게 나타났다($P < 0.05$).

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

보건소 간호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.

1) 전반적으로 수행정도가 낮았던 보건소 간호원의 가정방문 활동과 집단보건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.

2) 전문직으로서의 보건소 간호사의 자격과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제도나 면허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.

3)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수행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요인분석이 이루어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연구하여야 한다.